

엄마와 함께하는 '빵' 만들기 봉사

할아버지·할머니 제가 만든 빵 드세요



◇“저희들 솜씨 어때요” 빵만들기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쿠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1월 28일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 4층 제과제빵실에는 앞치마를 두른 초등학생 1학년생 9명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있다.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제빵사 최호순 선생님의 지도 아래 빵을 만들어 정수주간보호센터에 재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것. 어르신들의 소화를 돕기 위한 호박 케이크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칩 쿠키를 만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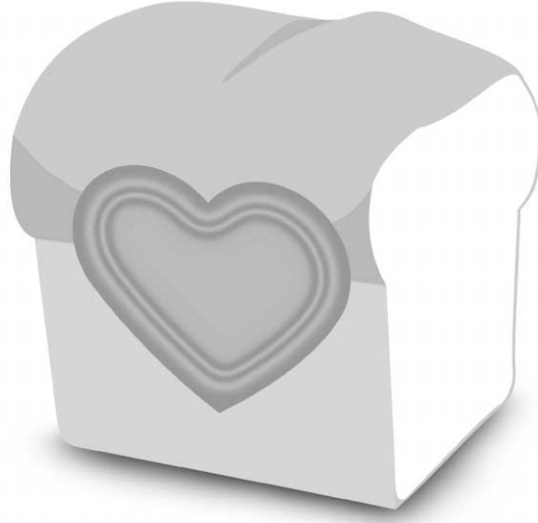
복지사 선생님의 설명이 시작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의 엉덩이

모양 제각각이어도 마음은 하나

'봉사는 즐겁다'는 생각 갖게돼

가 들쭉들쭉한다. 얼른 맛있는 빵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봉사활동의 의미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먼저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소개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고서야 빵 만들기가 시작됐다.

분량의 재료가 조리대 위에 올려지고, 어머니들이 호박을 썰는 동안 아이들은 설탕과 밀, 밀가루 등의 재료를 나른다. 계란을 깨서 그릇에 담아 놓기도 하고 혹은 훌리거나도 할까 조심스럽게 밀가루를 체에 내린다. 호박과 밀, 계란, 밀가루를 그릇에 담아 거품기로 휘저은 다음 식용유만 넣으면 반죽은 끝. 이제 반죽을 웅기에 담아 구워내기만 하면 되는데, 질박한 반죽을 떠 담는 일도 아이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오븐에서 호박 케이크가 구워지는 동안 이번에는 초코칩 쿠키를 만든다. 아이들이 반죽기로 버터와 설탕을 녹이는 일을 번갈아 해보고 저민 아몬드와 초코칩을 넣은 반죽을 조금씩 떼어 둥글납작하게 빚는다. “난 파배기 모양 쿠키 만들거야” “내가 먹은 쿠키는 이렇게 안생겼어” “도너츠 모양이 더 예뻐” 결국 오븐 웅기에 담긴 쿠키 모양이 각양각색이다. 쿠키를 오븐에 넣고 집어서 싸운 도시락을 점심으로 먹으며 서로 장기자랑은 무얼 할 건지, 어떤 노래를 부를지 의논을 하느라 조리실 안은 또 한번 시끌벅적해 졌다.

오후 1시 30분, 케이크와 쿠키를 손에 든 아이들이 정수주간보호센터로 향했다.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속삭여주며 빵을 건네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새해 인사도 잊지 않는다. 아이들의 장기자랑을 보며, 또 아이들이 만들어온 빵을 먹으며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오른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평가 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자못 엄숙하다. ‘느낀점’란에 ‘봉사는 즐겁다’고 쓰기도 하고, 스스로 봉사활동의 점수를 매겨 보며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적어 보기도 한다. 이규진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는 무조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힘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빵 만들기를 통해 즐겁게 일하면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여름방학 때는 소보루 빵 만들기를 했다는 박종민(11), 아론(8)이 형제의 어머니 송명정(36, 강남구 논현동) 씨는 “아이들과 봉사활동을 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은데 함께 빵을 만들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다시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이처럼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소설가 남지성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귀농과 자녀교육

여섯 살짜리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둔 30대 중반의 가장이 찾아 왔습니다. 그 분은 욕망으로 뒤얽려 있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욕망을 재생산하면서 살아갈 자신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야 할 의미도 발견할 수 없어서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방황하다가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귀농을 결심하자 가장 먼저 실망한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뼈마디가 부서지도록 농사를 지어서 아들을 대학에 보냈는데, 그 아들이 대학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이웃집 아들과 다를 바 없이 농사를 짓겠다고 나서니 부모님 입장에서 몹시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 못지않게 실망한 분들이 처가 쪽 가족, 그 중에서도 장인, 장모라고 합니다. 그 분들 역시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대대로 내키고던 문전옥답을 팔아서 서울로 이주해 온 분들이라고 합니다. 농사짓는 일만은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해 자식들을 공부시켰는데,

해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이렇게 취학 직전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가도 괜찮은가 해서 말이죠.

“선생님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인생을 수 천, 수 만의 학년이라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백년 미만의 인생을 사는 인간으로서서는 수 천, 수 만의 학년을 다 볼 수도 없고 다 마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미완성의 인생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그 삶은 수 천, 수 만의 학년 중 하나일 수 밖에 없으니깐요. 급생의 제 삶이 어느 단계쯤에 와 있는지는 저 자신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려면 불안(佛眼) 법안(法眼)은 갖추지 못하였다 해도 최소한 혜안(慧眼)이나 천안(天眼)은 갖추고 있어야 할 텐데 저는 가장

말바닥 단계인 육안(肉眼) 밖에는 갖추고 있지 못하니깐요. 육안밖에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 저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 안에 머물러 있나 봅니다.”

이렇게 설명한 후, 뭔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에서 얻는 지혜 무엇보다 커

그렇게 힘들게 공부시켜 놓은 자신의 귀한 딸을 도로 농촌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 장인 장모 입장에선 반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가의 부모 뿐 아니라 자신을 아는 사람들도 대개는 “한창 일해서 생활기반을 닦아야 할 중요한 나이에 무슨 귀농이냐?”며 반대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좋아서 농사를 짓는다고 쳐도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밑바닥엔, 서울에 살아도 아이를 경쟁에서 이기게 하기가 어려운데 시골로 데려가서 무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비하의 감정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의 계획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아내는 “당신 덕분에 시골풍경을 마음껏 밀바닥엔, 서울에 살아도 아이를 경쟁에서 이기게 하기가 어려운데 시골로 데려가서 무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비하의 감정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힘은 경쟁입니다. 모두들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죠. 같은 종교를 믿는 성직자들끼리도 자기를 안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것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제가 귀농을 하고자 하는 것도 부질없는 경쟁에서 탈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경쟁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무지와 욕망이 합작해서 빛내는데 산물인데, 거기서 이겼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자식한테도 제가 판단한 것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자식은 저와는 별개의 생명이니깐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하고 궁리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자연 속에서 뛰놀면서 자란 아이는, 도시에서 독선생 5명한테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흡수한다고 하더군요. 생명 속에서 얻는 지식이 확원을 전전하면서 얻는 지식보다 더 크다는 뜻이겠지요. 주저하지 마시고 계획하신 대로 시골에 가서 아이를 키우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신이 터득한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테니깐요.”

化緣 (02)704-3577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송이버섯

송이버섯 200g, 쌀 3컵, 애호박 1/2개, 집간장 약간

1. 쌀은 30분 전에 미리 씻어 건져 놓는다. 송이버섯은 끝부분만 조금 잘라내고 씻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썰는다. 애호박은 반으로 잘라 은행 잎 모양으로 썬다.

2. 솥에 쌀을 넣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호박을 넣고 밥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송이버섯을 넣어 뜸을 들인다. 뜸이 다 들면 그릇에 담아 집간장과 곁들여 낸다.

<자료제공=전세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약초안마봉 · 한방항기주머니

약초 효능을 생활 속 가까이에서 느끼세요

약초를 이용한 생활용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천연염색 제품을 만드는 ‘약초보감’이 만든 ‘약초안마봉’은 황토 천연염색전에 콩을 담았고, 한방항

기주머니에는 속 등의 한약재를 담아 약초의 효능을 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값 약초안마봉 1만5천원, 한방항기주머니 1만원 (02)732-1520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중단협의회회장)

불국토 이룩하는 그날까지

이원규(서울 광진구 자양2동)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은 부처님 가피 아래 언젠가 좋은 날이 오리라 믿으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고 나는 일단 대학공부를 뒤로 미루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해(1999년 5월) 아버지께서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지르셨어요! 말았다.

대한불교 조계종 자양포교원! 그러니까 포교원을 개원하신 것이다. 내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께선 꾸준히 교리강좌와 불교대학 등을 통해 공부를 하셨고, 포교사자격증은 이미 취득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의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론 부처님을 믿고, 불법에 따라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고, 또 아버지가 예전부터 언젠가 꼭 포교당을 열어 우리 가족의 몸에 익숙해진 실천불교를 지역사회에도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음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힘든 시기에 주위에 십자가로 온통 둘러싸여있는 자양동 한 가운데에서 무슨 포교활동을 한다는 말인가? 어쩌면 오히려 겁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마저 생겼다. 하지만, 아버지는 확고하셨고, 현재 운영회장인 금강심보살님을 비롯한 주위 뜻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예전 선교회원이 있던 자리를 임대해 포교원을 개원하셨다.

사실 아버지께서 포교원을 개원했다는 것과 포교활동을 하시겠다는 데에 대해 어떤 뿌듯함이나 기대 같은 건 가질 수 없었다. 나는 가족이 힘을 모아 빨리 경제적 안정을 되찾고, 대학에 진학에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을 뿐이었다.

주위에 몇 집 건너 교회가 하나씩 자리하고 있는 자양동에서 조그마한 포교원이라는 공간 하나가 오히려 불교에 대한 인식을 더

어둡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었다. 그런 걱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버지는 금강심보살(운영회장), 무애거사(거사회장), 정진화 보살(신도회장)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어린이회를 창립하고, 거사회, 자모회를 창립하자 불자들이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했다. 초하루, 보름기도는 물론 대입일기도, 영가전도... 그리고 분기별 삼사순례와 르스나 초청법회 등 행사가 이어질 수록 책박하던 이곳엔 낯익이 불법이 퍼져갔다. 법당에 들어서면, 삼배를 올리면서도 편지 않았던 나의 마음도 어느 샌가 예전 그대

포교원 개원, 아버지 확신에 근심사라져

자비·사랑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어

로의 부처님 향한 마음으로 녹아있었고, 포교원 옥상에 임의로 만든 2평 남짓한 옥탑방에서 나는 내 미래를 설계하면서 원을 세웠다. 아무리 힘이 들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부처님께 원을 세우고, 정진한다면 언젠가는 가피를 입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확신처럼 말이다. 어쩌면 아버지는 내가 우려했던 대로 겁을 짓는 게 아니라 전생에 지은 업을 소멸해야 하는 불가피한 길을 가시든지도 모르겠다.

그런 확신처럼 올해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간대학에 진학했다. 직장도 학교 생활을 병행한다는 건 수많은 제약과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

하게 되었다는 데에 희열과 보람마저 느낀다. 지나간 힘들었던 과거는 아마도 부처님께서 내가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신 것이고, 지금의 고된 일상은 그 틀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며, 그 결과의 작품은 멀지 않은 훗날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제 우리 포교원의 신도는 여기 자양동은 물론 서울, 경기 곳곳에 분포해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엔 거사회 법회가, 또 매월 초하루엔 자모회 법회, 매주 토요일 30~40여명의 아이들이 꾸준히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특히 어린이 법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신다. 아마도 나와 동생의 어린적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걸 커다란 보람으로 여기시는 게 아닐까?

얼마 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개최했던 ‘부처님그리기대회’가 있던 날 나는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기억한다. 더불어 환하게 부서지는 미소도 함께. 이 전에도 ‘만해백일장’이나, ‘연꽃노래잔치’ 등 여러 행사가 아이들을 인솔해 참가했고, 그 중 몇 아이들이 상도 받았었지만, 그 날은 모두가 하나가 된 날이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에도 참가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 그 결과, 최우수단체상과 응원상마저 휩쓸었다.

내 동생은 아동음악을 전공해 지금 어린이회의 지도교사로 아버지를 도와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피아노는 물론, 플루트, 가야금 등의 악기를 가르치고, 더불어 찬불가도 지도한다. 또 미술을 전공한 자모회의 김용주 선생이 미술공부를, 영어를 전공한 김민정 선생이 영어공부를 지도한다. 모두가 이 나라의 꿈나무들이 아이들에게 부처님 같은 인성과 심성을 심어주기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다. 오히려 직장생활이다 학교생활이다 핑계로 아이들에게 소홀한 나는 항상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뿐이지만, 조만간 나도 아이들에게 끝없는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전할 생각이다.

매년 마지막 날엔 자양포교원의 많은 식구들이 법당에 모여 송년법회를 갖는다. 목은해의 나쁜 기억들은 모두 잊고, 새해에는 부처님의 가피 아래에서 더욱욱 정진하겠다고 원을 세운다. 각자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생활하기는 이 나라의 중심임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활불교를 실천해 가지고 마음을 모은다.

날로 척박해져 가는 산업사회의 이기심과 차가워져가는 사회의 인심을 불심으로 불밝히는 항과 촛불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원한다. (끝)

그림 · 김홍인

